

# KIA 8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김국영 육상 100m 한국新



## 1. 타이거즈 8년만에 통합 우승

KIA 타이거즈가 2009년 이후 8년 만에 KBO리그 왕좌에 올랐다. '100억 사나이' 최형우를 영입해 허리를 강화한 KIA는 필을 대신해 새로운 외국인 타자 버나디나를 세우며 전력을 재구성했다. SK와 넥센과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민식, 이병기, 김세현의 활약을 더해 KIA는 175일간의 선두 질주 속에 정규시즌을 1위로 마무리했다. '디펜딩 챔피언' 두산과의 한국시리즈에서도 1차전 패배 이후 내리 4연승을 달리며 통합우승을 이뤘다. 최장기간 정규 시즌 1위이자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은 'V11'이었다. 7명의 3할 타자가 탄생했고, 허터와 양현종은 동반 20승을 장식했다. 우승을 지휘한 김기태 감독은 3년 재계약에 성공했고 조계현 수석코치는 타이거즈 첫 야구인 출신 단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 KIA의 총 관중은 102만 4830명이 됐다. 평균관중은 1만4234명에 이르렀다. 챔피언스필드 2만500석이 가득 찬 매진 경기도 역대 최대인 10번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구단의 100만 관중 돌파는 롯데(1991년 등 8차례)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가 인구 348만명의 부산을 연고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147만 도시 광주의 100만 관중은 경이로운 기록이다.



## 2. 챔피언스필드 첫 100만 관중 돌파

'호랑이 군단'이 화려한 타격으로 1위 행진을 하면서 챔피언스필드를 응원 열기로 가득 채웠다. 8월 15일 NC전에서 지난해 작성됐던 역대 최대 관중 기록(77만 3499명)을 갈아치운 KIA는 이후 매 경기에서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9월 23일 kt와의 경기에 1만2056명이 입장하면서 사상 첫 100만 관중을 넘어섰다. LG를 상대로 했던 홈 최종전에는 1만1994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KIA의 총 관중은 102만 4830명이 됐다. 평균관중은 1만4234명에 이르렀다. 챔피언스필드 2만500석이 가득 찬 매진 경기도 역대 최대인 10번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구단의 100만 관중 돌파는 롯데(1991년 등 8차례)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가 인구 348만명의 부산을 연고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147만 도시 광주의 100만 관중은 경이로운 기록이다.

## 3. 김국영 육상 100m 한국新...세계육상 준결승 진출 쾌거

김국영(광주시청)에 의해 한국 남자육상의 대기록이 세워진 해였다. 김국영은 지난 6월 강원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7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신기록 달성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세계선수권대회 기준기록(10초12) 통과라는 기쁨을 누렸다. 김국영은 런던세계육상선수권에서 한국 육상 단거리 선수 최초로 준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지만 10초40로 8위에 그쳐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세계의 벽을 실감한 김국영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항상 그의 곁에서 제 몸처럼 살피는 심재용 감독과 박태경 플레임코치의 정성이 더해 2018년에는 월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국영은 다시금 9초대 진입을 위해 훈련에 매진 중이다.

리 선수 최초로 준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지만 10초40로 8위에 그쳐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세계의 벽을 실감한 김국영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항상 그의 곁에서 제 몸처럼 살피는 심재용 감독과 박태경 플레임코치의 정성이 더해 2018년에는 월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국영은 다시금 9초대 진입을 위해 훈련에 매진 중이다.



## 4. KIA 양현종 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KIA 양현종이 20승을 발판 삼아 2017 시즌을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이상훈에 이어 22년 만에 토종 선발 20승 주인공이 된 양현종은 자신의 한국시리즈 첫 승을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사상 첫 1-0 완봉승을 이뤘다. 완봉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양현종은 5차전에서는 9회 깜짝 마무리로 등판해 1점 차 승부를 지키며

'V11'을 확정했다.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쥔 양현종은 정규시즌 MVP로 사상 첫 통합 MVP에 등극했다. 각종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됐던 양현종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이름이 호명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했다. '챔피언' KIA는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상 외야수)까지 5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 5. '호녀 골퍼' 이정은 KLPGA 첫 6관왕

순천 출신의 '호녀 골퍼' 이정은이 KLPGA의 '대세'가 됐다. 순천 청암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13년 베이커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에서 아마추어 첫 우승을 이룬 이정은은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각별히 챙기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꿈을 키운 '호녀 골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5년 광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자신

의 시대를 예고한 그는 지난해 KLPGA 신인상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그리고 올해 4승을 거두며 2017년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삼금왕, 대상, 평균타수, 다승, 인기상, 베스트 플레이어 등 KLPGA 최초로 6관왕에 올랐다. '대세'가 된 이정은은 대방건설과 2020년까지 3년간 후원을 받는 역대급 계약에 성공했다.

- ①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우승
- ② 김국영 육상 100m 한국新
- ③ KIA 양현종 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 ④ '호녀 골퍼' 이정은 KLPGA 첫 6관왕
- ⑤ 광주 FC 챌린지리그 강등
- ⑥ 양궁 기보배 화촉



## 6. 광주 FC 챌린지리그 강등

광주 FC가 시즌 마지막 뒤늦은 질주에 나섰지만 강등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겨울 기적 같은 승격쇼를 하며 클래식 리그로 복귀했던 광주는 2015시즌 승격팀 첫 잔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독점왕' 정조국을 앞세워 팀 최다승(11)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무서운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민구단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 정조국을 강원으로 떠나보내는 등 해결

사 고민에 빠진 광주는 올 시즌 33득점에 그쳤다. 광주를 이끌어왔던 남기일 감독이 지난 8월 자진 사퇴를 하면서 김학범 감독이 '소방수'로 투입됐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광주는 대구와의 마지막 원정경기에서 0-2패를 당하며 강등이 확정됐다. 포항과의 홈 최종전이 끝난 뒤에는 김학범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광주는 2018 시즌 박진섭 체제로 새로 출발한다.

## 7.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체육활동 참여 확대

지난해 3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져 '대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1년여가 흘렀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인기,비인기종목의 차별, 순위 경쟁과 메달 획득에 치중하던 엘리트체육의 면모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모두 추구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체육계에도 변화의 바

람이 일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빛고을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개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체육회관을 비롯해 월드컵경기장, 국제양궁장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 8. 양궁·역도 체육 유망주들의 활약

광주와 전남지역의 스포츠 유망주들이 빛을 발하던 해였다. 여자양궁의 안산(광주체육고 1)은 처음 출전한 제98회 전국체전 60m 경기에서 347점으로 1위를, 30m에서는 동메달, 개인전에서는 은메달을 따내며 차세대 주자로 이름을 알렸다. 안산은 전국체전보다 앞선 2017 유세제양궁 선수권대회 카트(만 17세 이하) 리커브 60m 예선에서 686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작

성해내며 양궁 기대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의 신비(고흥고 2)도 전국체전에서 한층 더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기대를 의심치 않게 했다. 지난 98회 전국체전 역도 69kg급에 출전한 신비는 용상 160kg·급, 인상 128kg·은, 합계 288kg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전남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2관왕에 등극하는 등 '소년헤라클레스'라는 명성을 이어나갔다.

## 9. 광주·전남 선수단 전국체전 선전

지난 10월 충북 일원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은 14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전남선수단은 13위에 올랐다. 광주의 경우 1986년 이후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가장 많은 금메달(51개)을 획득한 대회가 됐다. 전남은 전년 대비 종합성적이 증가함으로써 성취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력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국영, 정혜림, 김덕현,

배찬미 등 광주시청 육상팀의 선전 속 양궁의 최민선(광주시청)의 세계타이기록과 평영의 백수연(광주체육고)의 3관왕 등 기록도 풍성했다. 전남은 수영 원영준(전남수영연맹)과 민수영 김보경의 2관왕, 자전거 정철화(전남미용고)의 3관왕이 전남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요트종목은 20회 아시아양궁선수권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는 등 '승부사' 기보배의 활약은 결혼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0. 기보배 양궁 월드컵 3번째 우승·결혼 '겹경사'

여자 양궁의 기보배(광주시청)가 세계 양궁의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컵 파이널에서 통산 세 번째 정상에 올랐다. 기보배는 지난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 여자부 결승에서 러시아의 크세니아 페로바를 세트 스코어 7대 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기보배는 2012년 도쿄대회, 2016년 덴마크대회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와 통산 3번째 우승의 위

업을 달성했다. 우승 인터뷰 도중 8살 연상의 남자친구와의 결혼 소식도 알리며 겹경사를 예고했던 기보배는 11월 가족과 친지, 동료의 축복을 받으며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어 신혼여행도 미루고 출전한 제 20회 아시아양궁선수권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는 등 '승부사' 기보배의 활약은 결혼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